

# SALONE

# CEL



Salone del Mobile. Milano

2022 밀라노 가구 박람회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약 3년 만에 정식 개최되었으며, 60주년을 맞이해 더욱 성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Proposal for Space에서는 밀란 트렌드를 통해 앞으로 나아갈 인테리어 및 가구 동향을 예측하고, 이에 맞는 동화의 제품을 제안합니다.

# MOBILE



# Salone del Mobile. Milano

## INDEX

Classic, Classy



Muted Tone Spectrum



Glossy Again



Material Collage



# 01



## Classic, Classy

### / Keyword

Black, Rich Browns, Neutral

Deep Emboss

Matte Touch

Walnut, Oa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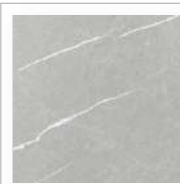
Natrual

이번 시즌에서는 실험적인 시도보다는 블랙의 세련됨, 우드의 따뜻함과 같이 소재 본연의 컬러와 특징을 클래식한 무드로 살리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안정적인 인상을 주되 브랜드 선택에 따라 깊은 엠보, 매트한 질감 등의 텍스처 디테일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Classic 컨셉의 관련 키워드로는 Black, Deep Emboss, Matte touch 등이 있습니다.



## Classic, Class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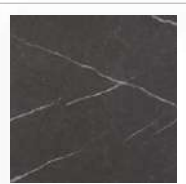
과감한 패턴의 대리석은 대담하면서도 모던한 분위기를 연출하며, 톤앤무드 속 블랙과 라이트 그레이 톤 대비가 주는 과감함은 한 번 더 새로운 인상을 전합니다. 블랙 컬러의 스톤 엠보는 자연 소재의 실제감과 세련미를 한층 더해 공간의 완성도를 높여줍니다.



Selection

Marquina

SL-029(B/S)



Selection

Marquina

SL-020(B/S)

Milan Refer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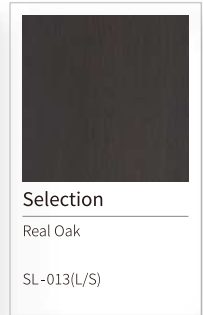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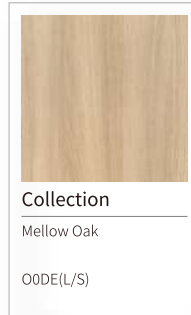
01

NOLTE



# Classic, Class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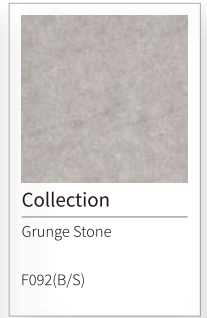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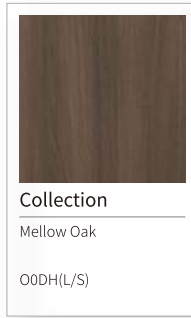
흰색과 미색보다는 어두운 회색과 검은색을 활용하는 ‘뉴 노르딕’ 인테리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차분한 톤의 어두운 색상은 무채색 뿐만 아니라 오크와 같은 부드러운 자연 원목과도 잘 어우러져 포근한 공간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 Classic, Classy

그레이시하면서 워톤이 살짝 가미된 그런지 스톤 패턴은 오크와 조화를 이루어 따뜻하고 클래식한 공간을 만들어 줍니다. 새로운 시도보다는 안정적인 공간이 주는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우드, 대리석 조합입니다.



# Classic, Class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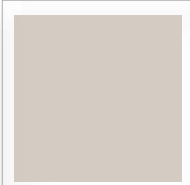
다크한 무드 뿐만 아니라, 깔끔하고 안정된 느낌의 베이지와 화이트톤의 조화도 Classic 컨셉에서 볼 수 있는 메인 테마 중 하나입니다. 우드, 마블, 단색의 세 가지 다른 소재를 톤온톤으로 배치한 공간에서는 자연 소재가 어우러진 내추럴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Collection**

White Mar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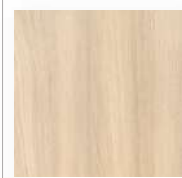
F01R(B/S)



**Pantone**

Warm Gray 2 CS

PS-604(U/S)



**Collection**

Mellow Oak

O0DD(L/S)



**Pantone**

Pure White

PS-600(U/S)



# 02

## Muted Tone Spectrum

### / Keyword

Blue, Yellow, Burgundy

Matte Touch

Mid Tone

Mild, Cal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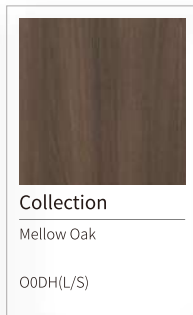
다채로운 컬러 사용은 브랜드 특성을 살리는 방법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전에는 포인트 컬러로 일부 부위에 주로 사용되었다면, 최근에는 주거공간 주변적에 광범위하게 적용된 변화가 보여집니다. 주변적의 유채색 사용이 자칫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낮은 채도, 매트한 질감 마감으로 부드럽고 안정된 무드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관련 키워드는 Blue Color Scheme, Matte Touch, Mid Tone 등이 있습니다.





## Muted Tone Spectrum

오랜 시간 집에 머무는 것이 일상이 되면서 자신의 공간에서나마 자연의 요소를 느끼고 싶어하는 욕구가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린이라는 평온함과 차분함은 자연스러운 우드 텍스처와 함께 어우러져 포근한 공간을 연출합니다.



Milan Reference





# Muted Tone Spectr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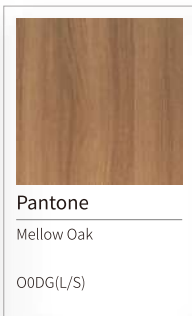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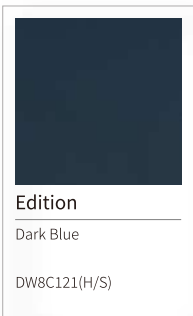
부드럽고 다크한 톤의 블루는 흰색이나 원목 색상과도 조화로운 대비를 이루어 인테리어에 활용하기 좋은 컬러 중 하나로 꼽힙니다. 자연스러운 느낌의 원목과 톤다운된 노랑, 초록, 파랑 등 포인트가 되는 색상을 과감히 배치하여 모던하면서도 경쾌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Milan Reference



05

NEXT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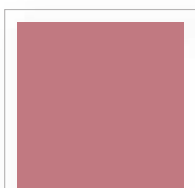


06

STOSA



## Muted Tone Spectrum



Pantone

2447 CS

PS-623(U/S)



Sele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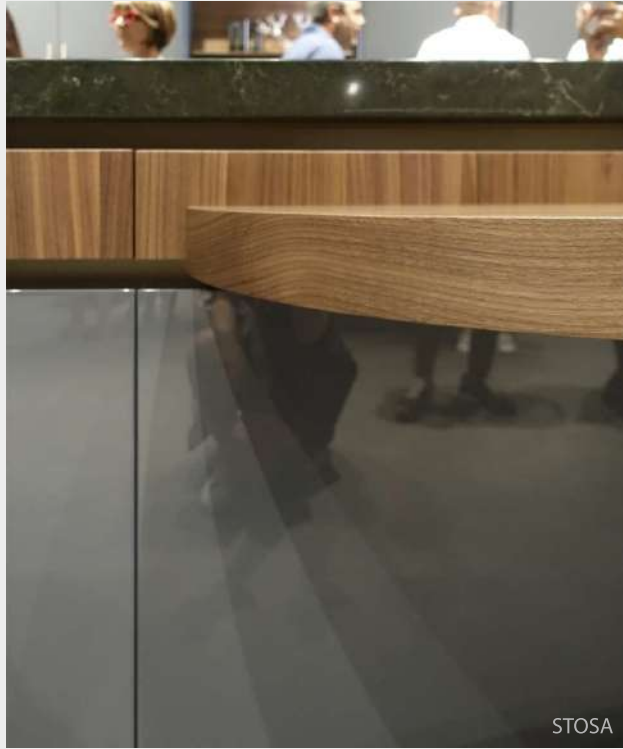
Marquina

SL-029(B/S)

따뜻한 느낌의 미트톤 핑크 컬러는 대조되는 그레이톤의 대리석과 매치되어 새로운 무드를 연출합니다. 톤다운된 핑크를 통해 본래 색상이 가진 강한 이미지를 상쇄하고, 덧붙여 그레이와 같은 무채색과 함께 구성한다면 화사한 분위기를 살리면서도 모던함을 조성해 색다른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 03



## Glossy Again

### / Keyword

Gray

Polished

Glossy

이전까지는 매트한 질감 소재가 80%, 유광소재가 20%의 점유율에 그쳤다면, 이번 시즌에서는 유광소재의 점유율이 두 배 가까이 증가하는 추세였습니다. 글로시한 소재의 컬러는 미색의 그레이, 베이지톤이 주를 이뤘고, 도어와 바디가 단색 혹은 우드의 톤온톤으로 구성되어 안정적이되 눈에 띄는 공간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 Glossy Again

톤에 따라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그레이 컬러는 클래식한 내추럴 소재와 조화를 이루어 세련된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우드경면의 단색과 글로시한 텍스처 조합은 모던하면서 포인트가 되는 공간을 만드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 Material Collage

## / Keyword

Layered, Customizing

Fabric, L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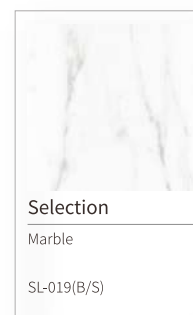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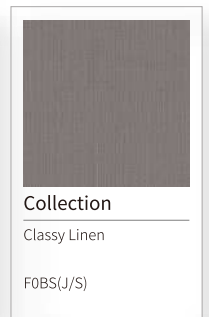
Soft, Class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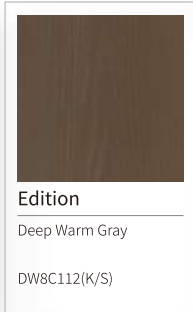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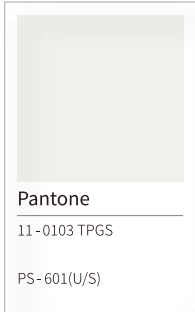
겉으로 보이는 외관 외에 보이지 않는 내부 면적까지 하나의 디자인으로 비춰지는 추세입니다. 특히 이번 시즌의 가구 내부(바디)는 마치 꼴라쥬처럼 두 개 이상의 패턴을 조합해 세련미와 새로움을 연출한 것이 특징이었으며, 이는 두 가지 이상의 무드를 느끼며 다양성에서 오는 조화로우움을 연출할 수 있는 컨셉입니다.



# Material Collage

가구 내부(바디)에서는 단색보다 부드러운 컬러, 라인 느낌의 결이 느껴지는 패브릭 패턴이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 따뜻하면서도 모던한 패브릭 텍스처는 적용 면에 따라 그 종류가 다양하게 믹스매치되었으며, 이에 따라 내추럴한 텍스처 무드의 세련미를 한층 더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 Material Collage

바디용 마감재 컬러는 대부분 화이트, 아이보리 계열의 뉴트럴톤으로 구성되었으며 뉴트럴 톤의 단색, 패브릭과 우드와의 조합은 보이지 않는 가구 내부의 디테일을 살려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차분한 무드의 뉴트럴 톤과 미드 혹은 다크톤 우드의 조합을 통해서 자연의 질감이 극대화된 고급스러운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Milan Reference



08



09



SALONE

CELL



Salone del Mobile. Milano

MOBILE